▌일반논문 ▌『로컬리티 인문학』19, 2018. 4, 261~286쪽 http://dx.doi.org/10.15299/tjl.2018.04.19.261

등단 시스템의 변화와 복수 등단의 의미

이 청*

| 국문초록 |

이 글은 신춘문예에서 문예지 중심으로 등단제도의 권력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문학권력이 주도하는 등단제도의 불안정성이 복수 등단과 관련이 있음을 다룬다. 등단 후 신인작가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등단제도이며 그것은 문학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국의 등단제도는 신춘문예와 문예지를 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춘문예는 식민지시기에 정착했는데 신문사가 주최하는 이 제도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동인지 등단은 이전에 비해 세력이 약화된다. 이후 꽤 오랫동안 신춘문예의 권위는 유지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부터 문예지들이 자체적으로 신인을 배출하기 위한 수상 경로를 만들면서 신춘문예의 위상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문예지 등단에 비해 신춘문예 등단의 경우 신문사가 당선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신춘문예의 큰 이점으로 여겨지던 포상 역시 문예지에서 더 큰 액수의 상금을 걸면서 이전만큼의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게 됐다. 결국 등단제도에서 우위를 점한 문예지가 문학권력을 쥐게 되고 유수의 문예지를 가진 출판사들이 문단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신춘문예의 위상은 이전보다 낮아진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등단 등 등단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더 많은 변화를 겪는다. 예를 들어 등단을 바라는 예비 문인들은 더 좋은 조건을 좇아 지속적으로 투고를 한다. 그리고 등단 이후에도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상금을 건 문학상을 거머쥐기 위해 또는 영향력이 큰 문예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재등단, 복수등단, 이중등단 등을 시도한다.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 이유와 관련해 교육과의 연계성도 살펴보았다. 신인 선발 과정이 등단 제도로 자리 잡았고 그 제도의 인력 기반은 다시 등단 교육, 등단 교육 시장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결론에서는 복수 등단 관행을 막으려면 규정을 정비하고, 그것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인식 재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등단 시스템 서열화의 종식이나 해소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다양성을 살리는 길을 찾는 노력은 할 수 있다. 균형을 지향하다 보면 문단 권력, 문학 권력과 자본주의 결탁도 조금은 느슨해져 작가 독자, 매체 모두에게 시장의 논리가 아닌 취향의 존중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주요어: 등단제도, 신춘문예, 복수 등단, 서열화, 문단 권력

* 청주대학교 객원교수(echeongc@naver.com)

| 차례 |

1. 등단제도와 문학권력의 상관성
2. 1990년대 이전 복수 등단 사례의 의미
3. 1990년대 이후 복수 등단 관행의 확산
4. 폐쇄적 등단 교육과 작문 환경의 변화
5. 결론

1. 등단제도와 문학권력의 상관성

등단제도 연구는 문학권력의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등단 후 신인 작가의 거취는 등단 방식 즉 등단제도로 결정된다. 한국에서 주로 거론하는 등단 경로는 첫째 추천제, 둘째 문예지 문학상 수상 셋째 자비 출판 넷째 중앙일간지를 비롯해 지방지를 포함하는 신춘문예다.[1] 이 중 추천제와 자비출판의 경우 본고의 논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추천제의 경우 ≪현대문학≫이 겨우 명맥을 잇고 있으나 보편적인 등단 형태로 보기 어려워졌고[2], 자비출판 역시 출판자의 수나 출판 이후 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드물어 제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전히 신인 문인 등용문으로 각광받는 신춘문예와 문예지를 통한 등단으로 등단제도의 범위를 좁힐 것이다.

등단은 문학 제도권으로의 진입 과정이다. 제도권 안에서 특정한 등단제도가 힘을 얻게 되면 다른 제도의 권위는 자연스레 약화된다. 박헌호

1) 홍성원, 「보호를 요구하는 자존심들」, 『관훈저널』 28, 1979. 6, 194~195쪽.
2) 추천제는 등단제도와 문학권력의 상관성이 얼마나 짙은지 보여줄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추천제 폐지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사상계≫를 비롯한 종합지의 신인문학상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전과는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봉범의 두 논문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와 「1960년대 등단제도 연구」, 『상허학보』 41, 상허학회, 201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는 근대 문학 성립 시기에 동인지가 이끌던 등단제도가 신문사가 주최하는 신춘문예 제도로 권력이 이동한 현상을 주목하였다. 그는 등단제도를 '매체'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변환을 살피면서 "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이란 곧 어떠한 매체가 누렸던 권력의 문제이며, 그러한 권력이 가능했던 사회적 조건의 문제"[3]로 보았다. 등단제도는 신인 문인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기보다 제도를 장악한 주체들의 권력 행사나 이권 개입 양상에 더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는 등단제도의 신뢰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가벼이 다룰 수 없다.

1920년대의 신춘문예는 동인지나 잡지 형태의 등단 관행과 달리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그 후 오랜 시간 등단제도로서 신춘문예의 권위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신춘문예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수십 년째 존폐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문사가 여전히 신춘문예 제도를 유지하는 까닭은 "'우리도 경쟁지처럼 신춘문예 제도를 갖고 있다'는 신문사의 자부심이 우선"[4]한다. 이는 신문사가 일회적인 퍼포먼스나 이벤트 형식의 페스티벌을 이용함으로써 '문학'이 아닌 '상업'을 노리는 것이며 그로 인해 그것을 관망하는 문예지의 입장에서는 "신춘문예 출신을 '반풍수' 정도로 폄훼"[5]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신춘문예의 위상이나 권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신문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로서의 신춘문예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근대 초반 그리고 1950-60년대의 신춘문예가 갖고 있던 확고한 지위는 등단 후의 사후 관리 미비 및 신춘문예 심사위원의 고정성, 그로 인한

3) 박헌호, 「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8쪽.
4) 이춘호, <42%가 당선 후 10년간 책 한 권 못 내…"신춘문예는 끝 아닌 시작이어야">, 『영남일보』, 2013. 12. 6.
5) 위의 글, 같은 곳.

작품의 정형성 등의 문제로 급격히 떨어지며 등단제도와 신인 등용의 기회는 문예지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신춘문예에 비해 문예지는 후속 조치가 조금 낫다. 특히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문학동네≫, ≪자음과 모음≫ 등의 주요한 잡지들의 경우 자사 출신 작가들의 소속사를 자처하며 그들을 관리한다.

1925년 신춘문예가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6] 결국은 신문사가 등단제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을 다룬 것들이다.[7] 이와 같이 등단제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거의 신문사나 신춘문예가 권력을 얻기까지를 연구 범위로 삼아 왔으나 등단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실정이다. 또 이전과 달리 문학권력 문제가 신문이라는 매체를 떠나 비평권력, 상업권력, 정치권력 등으로 분화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앞서도 밝힌 것처럼 신춘문예에서 문예지 중심으로 등단제도의 권력 이동이 나타남을 전제한다. 그러한 경향의 근저에는 문학의 상업화라는 부인할 수 없는 자본주의 논리가 깔려 있다. 신춘문예의 위상 저하는 등단 이후 작가들의 출판 업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8] 현재의

6) 김영철, 「신문학 초기의 현상 및 신춘문예제의 정착과정」,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김춘희, 「한국 근대문단의 형성과 등단제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석봉,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2004; 박헌호, 앞의 글 등 참조.

7) 이봉범은 1950년대의 등단제도 정착과 관련해 논하면서 "독자획득의 유력한 방편으로 시행된 등단제도를 둘러싼 매체들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인해 등단제도가 하나의 문학적 권력 장치로 부각되는 가운데 당대 문학계의 구조 변동에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이봉범(2009), 앞의 글, 374쪽)

8) 영남일보는 신춘문예 100년을 이슈로 삼으며 당선자의 42%가 등단 후 10년이 지나도 책을 한 권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한다. 그에 따르면 당선 10년 뒤 3분의 1 정도는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그 외에는 대학·문화센터의 강사, 문학관·출판사의 직원 등이 되며 전업 작가라 하더라도 절반은 동화나 동시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춘호, 앞의 글)

등단제도는 등단 후의 지면 확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수긍을 바탕으로 근대문학 성립시기의 등단제도 확립 과정을 역행하고 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복수 등단 관행의 확산 문제다. 즉 문학권력이 주도하는 등단제도의 불안정성이 1회의 등단이 아닌 복수 등단을 부추기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2. 1990년대 이전 복수 등단 사례의 의미

지금까지 등단 구조 내지 등단제도에 대한 연구는 언론 계열에서 주로 다루었다.[9] 문학 장(場)에 머무는 사람들은 제도의 불합리성과 존폐 논란을 벌이기는 했지만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거나 해결을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았다. 한국의 등단제도를 살피기 위해 등단 작가에게 설문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어 현재의 상황을 집계하고 점검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춘문예를 주관하는 주체인 언론계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론은 당연히 신춘문예를 긍정하고 옹호하는 방향으로 내려졌다. 그러나 2000년대 이상문학상을 비롯한 문학상 논쟁에서 그리고 2015년 신경숙의 표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의된 등단제도로서의 신춘문예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드러냈다.

문제는 그러한 부정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 전후 신춘문예가 부활하고 등단의 공식성의 권위가 강화되면서 제도화되고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신춘문예의 과잉 열풍이 계속된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이미 표절, 모작, 대작 등의

9) 이와 관련된 학위논문으로 장호병, 「문인등단 매체와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논문, 2001과 임원식, 『신춘문예의 문단사적 연구: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2003(이 저서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신춘문예의 문단사적 연구」, 조선대, 2003을 출간한 것임)이 있다.

부작용이 야기되며 신춘문예에 정실의 개입과 심사위원의 아류 생산 문제 등이 나타난다.[10] 또 1960년대에 이미 제한적인 심사위원 구성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기된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춘문예의 위상을 흔들며 제도의 폐지까지 대두하게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보통 등단제도의 분석 요소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여 투고자, 매체, 심사자, 포상 등이 거론되며[11] 이 중 상대적으로 투고자, 매체, 심사자 등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 투고자의 경우 아무리 신춘문예가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가 많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문과나 문예창작학과에서 이루어지는 등단 교육이 등단제도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진다. 투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 중 신춘문예의 폐해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심사위원 및 심사 과정과 당선 이후 매체의 작가 인력 관리의 미비다.[12]

신춘문예제도에서 공신력을 담보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심사위원이었고 그렇기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가가 위촉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곧 신춘문예의 권위와 동일시되었다. 그로 인해 예비 문인들은 신

10) 이봉범(2014), 앞의 글, 440쪽.

11) 텍스트의 층위를 살피는 것은 시기나 주제 등을 한정하여 세분화할 때 더 잘 드러날 것이라 판단되어 여기서는 자세히 살피는 것을 생략한다. 그리고 포상은 신춘문예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였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문예지 및 언론·기업 등이 천만 원 단위 혹은 억대를 호가하는 단위의 포상을 제시하게 되고, 당연히 투고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 소제목의 시간적 분기점을 1990년대로 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12) 1979년『관훈저널』28집의 특별기획 '신춘문예는 존속돼야 하는가'에서 다룬 내용은 이후 30여년이 넘도록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대략적인 내용으로 거론되는 사항은 "심사위원의 편중과 중복, 심사 대상 작품 수와 심사 기간의 부족, 당선 작품의 패턴화와 매너리즘화, 공모 시기의 편중, 공모 분야의 한정과 전문화, 문학의 왜소화. 신춘문예 당선자 중 실제로 문학 행보를 이어가는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으며 이는 신춘문예가 일회적 이벤트의 특성을 지녀 당선자에 대한 후속적이 뒷받침과 발표의 장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이다.

춘문예에 호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공인'을 획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등단제도에 응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1990년대 이전의 대표적인 복수등단 사례(※아래의 표1)를 통해 알 수 있듯[13] 1950-60년대에도 등단의 관문은 좁았다. 많은 문인들이 다양한 방식의 등단 경로를 택했는데 언뜻 봐도 재등단[14]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 작가들이 이렇게 여러 번 등단 시도를 한 이유는 글 쓰는 일로 생계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15] 당선이 곧 기성작가의 대우 보장이던 과거와 달리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복수 등단을 선택했던 것이다. 초회 등단을 통해 입문 과정을 거치고 재등단을 하면 문재(文才)를 검증한 셈이 되니 심사자나 추천자에게 신뢰를 주는 이점(利點)이 있다.

13) 본고에서 신춘문예 당선 작가·작품의 목록은 1980년대 이전은 『한국수상문학전집 : 8-16권』(신태양사), 1980년대 이후 1983-1988년은 『신춘문예작품집』(소설문학사),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신춘문예당선작품집』(예하),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신춘문예 당선소설 작품집』(프레스21),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신춘문예당선소설집』(한국소설가협회)가 발간한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신춘문예당선 작품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간 주체가 변경된 까닭은 책의 수익성이 낮아 출판사에서 발간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미처 제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작가 약력에 포함된 것 위주로 정리하였다.

14) 이 글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리하면, 우선 복수 등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 복수(複數)는 두 번 이상의 의미다. 그러므로 '복수 등단'은 두 번 이상의 등단 과정을 겪은 경우를 총칭한다. 다음으로 '재등단'은 1. 이전의 등단 과정에 입선이나 가작 등 당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어 다시 도전하는 경우 2. 작가의 성향 문제로 문예지에서 신춘문예로, 신춘문예에서 문예지로 등단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 3. 지방신문에서 중앙일간지로 매체를 변경하는 경우 4. 장르 변경을 원하여 재등단을 노린 경우 등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이중 등단'은 같은 해 다른 작품으로 투고해 두 곳 이상에서 성과를 낸 경우로 '겹침 등단'을 의미한다. 신춘문예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지하고 있는 동일 작품의 복수 당선은 제외했다.

15) 조연현이 수치화한 바에 따르면 최소 생계비 마련이 가능한 문인이 3%, 평균 집필량 50매 이하 문인이 34%다.(조연현, 「한국문학의 사회학적 고찰」, 『문예비평』(조연현 문학전집 4), 어문각, 1977, 140~143쪽.

<표 1> 1990년대 이전 신춘문예 당선자의 중복 등단 목록

작가명	년도	매체	당선 종류	작품명
김동리	1934	조선일보	시 입선	백로
	1935	중앙일보	소설 당선	화랑의 후예
	1936	동아일보	소설 당선	산화
김유정	1935	조선일보	소설 당선	소낙비
		중외일보	소설 당선	노다지
정비석	1936	동아일보	소설 가작	졸곡제
	1937	조선일보	소설 당선	성황당
곽하신	1938	동아일보	소설 당선	실락원
	1939	≪문장≫	소설 추천 완료	마냥모
전광용	1936	동아일보	소설 입선	별나라 공주와 토끼
	1955	조선일보	소설 당선	흑산도
정한숙	1948	≪예술조선≫	신인상 당선	흉가
	1953	조선일보	현상소설모집 당선	배신(중편)
	1955	한국일보	소설 가작	전황당인보기
오상원	1953	극협작품공모	희곡 당선	녹쓰는 파편
	1955	한국일보	소설 당선	유예
하근찬	1955	≪신태양≫	전국학생문예모집 당선	혈육
	1957	한국일보	소설 당선	수난이대
이제하	1956	서울신문	시 가작	꽃 주전자와 꿈
	1957	≪현대문학≫	소설 추천 완료	설야 등
이병구	1957	자유신문	소설 입선	생명 이후
	1957	조선일보	소설 가작	낙일
	1958	평화신문	소설 입선	한류
	1958	조선일보	소설 당선	후조의 마음
송상옥	1959	동아일보	소설 가작	검은 이빨
	1959	≪사상계≫	소설 추천 완료	제4악장
홍성원	1961	동아일보	소설 가작	전쟁」
	1964	한국일보	소설 당선	빙점시대
	1964	≪세대≫	소설 당선	기관차와 송아지
	1964	동아일보	장편 소설 당선	디데이의 병촌
박태순	1964	≪사상계≫	신인문학상 입선	공알앙당
	1965	경향신문	소설 가작	향연
	1965	한국일보	소설 가작	약혼설
	1966	≪세대≫	신인문학상 당선	형성(중편)
김원일	1966	대구매일신문	매일문학상 소설 당선	1961·알제리아
	1967	≪현대문학≫	소설 준 당선	어둠의 축제(장편)
백시종	1966	≪현대문학≫	소설 추천 완료	햇빛 아래
	1966	대한일보	소설 가작	나루터
	1966	전남일보	동화 당선	꽃마음

작가명	년도	매체	당선 종류	작품명
	1967	동아일보	소설 당선	비둘기
	1967	대한일보	소설 당선	뚝 주변
황석영	1962	≪사상계≫	신인문학상 입선	입석부근
	1970	조선일보	소설 당선	탑
박상륭	1963	≪사상계≫	신인문학상(가작)	아겔다마
	1964	≪현대문학≫	소설 추천 완료	장세전
이세기	1968	조선일보	소설 당선	두 시간 십 분
	1968	≪현대문학≫	소설 추천 완료	타향
한승원	1966	신아일보	소설 입선	가증스런 바다
	1968	대한일보	소설 당선	목선
오탁번	1966	동아일보	동화 당선	철이와 아버지
	1967	중앙일보	시 당선	순은이 빛나는 이 아침에
	1969	대한일보	소설 당선	처형의 땅
최인호	1963	한국일보	소설 입선	벽구멍으로
	1967	조선일보	소설 당선	견습환자
	1968	≪사상계≫	신인문학상 입선	2와 1/2
	1969	≪현대문학≫	소설 추천 완료	순례자 등
박기동	1970	서울신문	소설 당선	퇴화론
	1977	≪문학사상≫	신인상	달과 까마귀(중편)
김승희	1973	경향신문	시 당선	그림 속의 물
	1994	동아일보	소설 당선	산타페로 가는 사람
이문열	1977	대구매일신문	소설 입선	나자레를 아십니까
	1979	동아일보	소설 당선	새하곡(중편)
문형렬	1975	매일신문	동화 당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982	조선일보	시 당선	꿈에 보는 폭설
	1982	매일신문	소설 당선	설해
	1984	조선일보	소설 당선	물 뿌리기
이창동	1983	동아일보	소설 당선	전리(중편)
	1992	한국일보	창작문학상	녹천에는 똥이 많다
임찬일	1986	≪월간문학≫	소설 당선	도래지
	1986	중앙일보	전국시조백일장 장원	
	1986	스포츠서울	시나리오 당선	
	1992	동아일보	시조 당선	겨울 설악에 와서
	1996	세계일보	시 당선	알고 말고, 네 얼굴

1990년대까지 복수 등단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고자의 의지와 인정 욕구였다. 예를 들어 김동리는 1934년에 각 신문사의 상금을 몽땅 타볼 작정으로 한 달 만에 소설 3편, 희곡 2편, 시 3편, 시조 3편을 써서 응모하는 열정을 보였지만 시 '백로'만 조선일보에 가작으로 뽑히는 데

그치고 만다. 그러나 시의 당선 상금이 소설의 1/10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자존심이 상해 다음 해 그리고 그 다음 해 연거푸 소설로 재도전해 그가 당선 3관왕의 영예를 안게 된 일화는 유명하다. 또 박태순의 경우도 신춘문예에 '스물한번 투고질에 열네번은 예선에서조차 미끄럼질을 타는 한심한 과정을 거쳐서'[16] 한국문단에 진입하게 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어렵게 등단을 해도 온전히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단 진입 후의 공평함이 깨지는 과정은 여러 가지겠지만 지방, 지역의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로 등단한 경우를 중앙의 매체들이 배타적으로 상대하는 것에도 연유가 있다.[17] 지역의 문인들은 기성이라고 해도 중앙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계속 해서 복수 등단을 시도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역의 차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단의 권력 편중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김정란은 이에 대해 "신춘문예 심사를 살펴보면, 문학권력을 둘러싸고 한국 문단 안에 기묘한 방식으로 일종의 이너써클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서 쿼터를 할당받은 사람들만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다. 중심의 인지를 받지 못한 문인들은 철저히 배제된다"[18]고 비판한다.

비교적 순수하게 문학성을 옹호하던 등단 과정이 1990년 출판 자본과 결탁하게 되면서 권력의 형태는 더욱 무섭게 가시화된다. 예를 들면 "출판사가 운영하면서, 출판사가 상금 주고, 출판사가 선정하고, 출판사가 책을 내고 이런 방식의 공모 제도"[19]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한

16) 박태순, <나와 60년대>, 『경향신문』, 1969. 12. 3.

17)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신춘문예가 행해지는 신문의 수는 대체로 20여개 안팎이다. 이 중 중앙일간지로 칭해지는 것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정도이고 나머지 경인일보, 광남일보, 무등일보,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영남일보, 광주일보, 한라일보, 경상일보, 강원일보, 경남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부산), 매일신문(대구) 등의 지역 신문은 지방지로 소개되며 농민신문, 불교신문 등의 대상이나 내용이 한정된 매체 역시 중앙지로 다루지 않는다.

18) 김정란, 「신춘문예, 다시 생각해보자」, 『말의 귀환』, 개마고원, 2001, 56~57쪽.

19) 손아람, 「한국문학의 폐쇄성을 넘어서-신경숙 표절 논란으로 살펴보는 문단 권력과

작가는 이제 작가를 지배하는 것은 문학이 아니라 출판사라고까지 말한다. 대학 기관이 본격적으로 문인 양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시기는 1960-70년대이다. 그 당시 신춘문예를 쥐락펴락하던 연계 고리가 신문사-심사위원-교육기관이었다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점 출판사-편집위원-문학상 중심으로 이동하며 결국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작가나 작품을 소유하는 구도로 접어들게 된다.

3. 1990년대 이후 복수 등단 관행의 확산

1990년 이후의 신춘문예는 그 전과는 여러 가지 차이를 갖는다. 매체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영상 매체의 영향력이 커졌고, 신춘문예 자체의 폐해가 거듭되면서 신뢰를 잃었으며 문학잡지가 쏟아져 나와 신문의 입지가 좁아졌다. 문학은 영화나 게임, 웹툰 등의 만화 형식에 자리를 내어주고 중심에서 주변으로 자리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춘문예의 고유성으로 남겨졌던 대중성과 신인 선발의 공신력 또한 약화되었다. 강진호는 “새로운 잡지들이 대거 출현하고 신인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를 “누구나 맘만 먹으면 문인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아마추어 문단 시대’로” 규정하면서 ‘사이버 신춘문예’ 역시 신인 양산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 신춘문예를 비롯한 등단제도의 판도가 이 시기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신춘문예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기에 등단 작가의 등단 매체에 큰 의문을 품지 않았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등단 시스템의 서열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학 장의 상업성이

문학 제도의 문제」, 『실천문학』, 2015. 8, 33~34쪽.

20) 강진호, 「‘신춘문예’라는 제도, 그 전개 양상과 운명」, 『문화예술』, 2007년 2월, 63쪽.

크게 부각되면서 등단 구조 서열화를 어느 정도는 혹은 공공연히 인정하는 추세다.[21]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문예지들이 단순히 문학 작품을 선별하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인공모제를 제정하면서 문학권력의 판도를 거머쥐었다는 것이다. 1995년 '문학동네 소설상', 1996년 '문학동네 작가상'으로부터 시작된 『문학동네』 신인공모를 비롯해 1998년 '창비소설문학상', 2002 문학과지성사의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 등 대형 출판사[22]의 문예지들이 독자적인 신인 선발을 선택한다.

1990년대 이후 신춘문예 당선자의 복수 등단 이력을 간단히 정리한 표를 통해[23] 많은 문인들이 이전과 달리 1회의 등단으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인 작가들이 정식 루트를 거쳐 작가 타이틀을 얻고 나서도 재차, 삼차 등단이라는 재시작점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1990년대 이전의 작가 개인의 의지나 이전 세대를 향한 인정 투쟁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신춘문예 등단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에 복수 등단을 시도한 작가의 목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 보았다. 그런

21) 서효인은 "확실히 등단 제도에는 제도를 운영하는 매체의 힘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단과 동시에 매체의 서열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미 등단 시스템의 서열화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한국문학의 폐쇄성을 넘어서-신경숙 표절 논란으로 살펴보는 문단 권력과 문학 제도의 문제」, 『실천문학』, 2015. 8, 27~28쪽)

22) <Publishers Weekly> 2016년 8월29일자에 따르면 출판업계는 매출 2억 달러 이상과 재정관련 투명성 확인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세계 50대 출판사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웅진과 교원이라는 교육 전문 출판사 두 곳만 포함되었다. 이 글에서 대형 출판사로 지칭하는 것은 문학 전문 출판 업계로 한정하며 해당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문학잡지의 판매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여기 해당되는 국내 주요 출판사는 <창작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문학 동네>, <자음과 모음>, <현대문학> 등이다.

23) 연구의 범위를 우선 단편소설 장르로 제한했다. 시를 포함해 시조, 수필, 아동문학 등을 포함하면 복수 등단 사례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나 시간상의 여건으로 다른 장르의 조사는 다음으로 미룬다. 마찬가지로 채우지 못한 당선 작품명의 확인도 함께 미뤄둠을 밝힌다.

데 이 목록에서 다룬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표 2> 1990년대 이후 신춘문예 당선자의 중복 등단 목록

작가명	년도	매체명	당선부문	작품명
강순금	1988	월간문학	소설	회생
	1990	세계일보	소설	뛰어넘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김도연	1991	강원일보	소설	돌, 구르는 소리
	1996	경인일보	소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2000	중앙신인문학상	소설	0시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노경실	1982	중앙일보	동화	누나의 까만 십자가
	1992	한국일보	소설	오목렌즈
김현주	1990	표현	시	
	1993	광주일보	소설	길이 없는 길을 향해
유성식	1992	한국문학	소설	
	1993	동아일보	소설	아주 사소한, 류씨 이야기
김재진	1976	영남일보	시	
	1993	조선일보	소설	외로운 식물의 꿈
한강현	1993	문학과사회	시	서울의 겨울 등
	1994	서울신문	소설	붉은 닻
송희복	1983	경향신문	문학평론	신화적 상상력, 그 초월과 내재
	1990	조선일보	문학평론	
	1995	스포츠서울	영화평론(가작)	
	2001	불교신문	소설	
은희경	1995	동아일보		이중주(중편)
	1996	문학동네	소설상	새의 선물
정길연	1984	문예중앙	소설	가족 수첩(중편)
	1996	평화신문	소설	숲의 나무
우광훈	1994	영일문학상	소설	
	1997	경향신문	소설	유쾌한 바나나씨의 하루
	2011	매일신문	시	1170호 소녀
구경미	1996	경남신문	소설	저문 기억
	1999	경향신문	소설	동백여관에 들다
김지윤	1992	세계일보	수필	굴절된 세월
	1999	국제신문	소설	절뚝거리는 세월
박정란	1998	경인일보	소설	시린 발로 걷기
	1999	대한매일	소설	틈새
은미희	1996	전남일보	소설	누에는 고치 속에서 무슨 꿈을 꾸는가
	1999	문화일보	소설	다시 나는 새
김도언	1998	대전일보	소설	철제계단이 있는 천변풍경

작가명	년도	매체명	당선부문	작품명
	1999	한국일보	소설	소년, 소녀를 만나다
이수정	1997	문예사조	시	샛길 등
	2000	국제신문	소설	절반의 무당
전유선	1992	경향신문	동화	
	2000	문화일보	소설	구스타프 김의 슬픈 바다
박현경	2001	문화일보	소설	섬 안의 섬
	2001	광주매일	소설	숨어 있는 눈
최치언	1999	동아일보	시	
	2001	세계일보	소설	석탄공장이 있는 市에 관한 농담
정경란	2001	광주매일	시	
	2002	무등일보	소설	길
이재영	2001	경남신문	소설	기억의 고집
	2002	부산일보	소설	도깨비바늘
권정현	2002	조선일보	소설	수
	2002	충청일보	소설	낫이 있는 풍경
이대훈	1997	창조문학	소설	
	2002	평화신문	소설	마당너구리
류은경	1998	작가세계	소설	
	2005	동아일보	소설	가위
정찬일	1998	현대문학	시	
	2005	문화일보	소설	유령
우승미	2003	불교신문	소설	
	2005	서울신문	소설	빛이 스며든 자리
이은유	1997	광주일보	시	호롱불을 켜고
	2005	전남일보	소설	달의 나무
김은진	2002	전남일보	소설	동굴속의 두 여자
(=장은진)	2005	중앙일보	소설	키친 실험실
김애현	2006	한국일보	소설	카리스마 스탭
	2006	강원일보	소설	빠삐루파 빠삐루파
	2006	전북일보	소설	K2블로그
이은조	1998	중앙일보	희곡	
	2007	동아일보	소설	우리들의 한글나라
류 진	2006	부산일보	소설	내 남자의 꿈
	2007	조선일보	소설	칼
유응오	2001	불교신문	소설	
	2007	한국일보	소설	요요
전윤희	2006	경인일보	소설	아버지의 집
	2008	세계일보	소설	우유
현진현	2000	동아일보	평론	대중문화의 소설적 교란
	2009	경향신문	소설	글렌 굴드 이야기
이산	2007	서울신문	시	미늘 등

작가명	년도	매체명	당선부문	작품명
(=이동욱)	2009	동아일보	소설	여우의 빛
김은아	2000	매일신문	소설	탱고
	2010	문화일보	소설	당신의 자장가
손보미	2009	21세기문학	소설	침묵
	2011	동아일보	소설	담요
심강우	1996	동아일보	동화	
	2012	경상일보	소설	늪
김가경	2009	부산일보	소설	보리수 여인숙
	2012	서울신문	소설	홍루
문부일	2008	문화일보	동화	나는 행복파출소에 간다!
	2012	전북일보	소설	어느 시대의 연애
이은미	2010	강원일보	동화	닭벼슬 머리 우리 형
	2015	경상일보	소설	바람의 노래
천종숙	2006	부산일보	시	바뀐 신발
	2015	부산일보	소설	홈메이트
권행백	2015	한국소설 신인상	소설	샤이레이디
	2016	불교신문	소설	륜향
	2016	광남일보	소설	미노타우로스 사냥꾼
강영미	2012	신라문학대상	소설	볼리비아 우표
(=강이라)	2016	국제신문	소설	쥐
한현정	2002	대구매일	동시	야단맞은 날
	2016	농민일보	소설	하얀 짐승
서귀옥	2014	광주일보	동화	태권브이를 부탁해
	2016	전북도민	소설	굿맨
조선수	2015	유심 신인상	시	멜빵
	2016	한국일보	소설	제레나폴리스

위의 표보다 복수 등단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신춘문예를 기준으로 신춘문예 이후의 재등단 여부를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문예지로 등단하고 또 다른 문예지로 다시 등단하는 경우 등도 제외되었다. 셋째 소설을 기준으로 그 외의 시, 희곡, 비평 등의 다른 장르를 다루지 못했다. 넷째 정보가 불분명해 누락된 자료들도 많다. 등단제도 간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더해져 빠진 정보들이 확인된다면 복수 등단의 사례는 위 목록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짐작건대 앞으로도 복수 등단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확인 가능한 선에서 작성한 위의 목록을 보면 1990년대 이전 사례가 대략 50여 년간 27건 정도고 1990년 이후는 절반의 시간인 25년여 동안 약 48건이 발견되었다. 이 수치만으로 복수 등단 사례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 등단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1920-30년대나 1950-1970년대에는 잡지나 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 등단 경로를 갈아타려는 시도가 더 중요한 양상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그와 반대로 신춘문예에서 문예지의 문학상 쪽으로 방향 이동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양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기본적으로 신문 매체의 경우 지방지보다는 중앙일간지가 문예지의 경우에도 인지도가 높거나 판매 부수가 많은 잡지가 선택의 우위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등단 시스템은 자연스레 서열을 이루고 작가들은 자신의 이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발판으로 복수 등단을 선택하게 된다.[24] 복수 등단자들의 선택이 대체로 시, 동화 등 다른 장르에서 소설 장르로 이행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특기할 점이다. 아마도 소설 장르의 상금이 가장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 장르에서 나타나는 복수 등단 사례의 경우 서열화에 따른 이동 즉 알려지지 않은 문예지 등단의 경우나 지방 신문으로 등단한 경우 중앙 신문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수 등단이라는 형태가 늘어나는 것을 호오의 가치판단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어쩌면 자유로워진 문학 시장의 다양한 시도의 일환으로 볼

24) 문예지 신인상을 받고 신춘문예로 재등단을 시도한 사례로 손보미를 들 수 있다. 손보미는 2009년 『21세기 문학』 단편소설 분야로 등단했지만 2011년 동아일보로 복수 등단했다. 문예창작과 교수회의와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인정을 거친 문예지 등급으로 당시 『21세기 문학의 등급은』 D급으로 최하급의 바로 위인 '하급'이었다. 실제로 손보미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이라는 권위를 획득한 이후 여러 문예지의 주목을 받았다. 이 경우 최초 등단 문예지의 등급이 중앙지 신춘문예 당선과 비교할 때 더 낮았기에 나타난 결과일 터다.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들이 작가라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유효한 매체를 점하려는 것이라면 문학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시장 경쟁 체제에 내맡겨져도 좋은 것인지 따져볼 일이다. 이제는 '최초 등단'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복수 등단을 치른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우리 문단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크고 많은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도록 부추겨지고 있다는 위험한 의미를 띨 수 있다.

출판사에 일반 투고 방식으로 등단을 하거나 작품을 내는 경우는 흔치 않고 그 과정 역시 매우 지난한 것이다.[25] 신춘문예 등단 작가의 이후 활동 연계 방식이 매우 한정적인 이유는 어디서도 지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면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또 다른 공모전의 문을 두드리는 것뿐이다. 그에 비해 문예지의 신인문학 수상 작가나 유수의 문학상 수상을 통한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과거에는 신춘문예 당선이 신인 문인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주었지만 지금은 거액의 상금이 주어지는 문학상의 수상자가 그 영광을 대체한다.

25) 이는 지난 2015년 가을『문학동네』'권력' 특집「한국문단의 구조를 다시 생각한다」에 대담자로 나선 손아람이나 장강명의 이력을 통해 드러난다. 여기서 손아람은 "첫 소설 원고를 스무 군데 정도 출판사에 보냈어요. 문학동네에도 첫 소설 원고를 보냈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했죠. 투고된 원고를 반송하는 출판사들은 대개 공모전을 가지고 있는 대형 출판사였어요. 공모전이 있는데 굳이 신인의 소설을 뜯어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라고 했고, 장강명은 "저도 투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 작년에 제가 문학상 두 개를 탄 상태에서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가, 세 번째를 타고 나니까, 어디서, 미안한데 우리가 그 원고가 스팸 메일함에 들어 있었으니 지금부터 검토해도 되겠냐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큰 출판사예요. (…) 이런 식으로 저도 투고의 서러움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모두 대형 출판사에 투고 형식으로 계약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들려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보충할 수 있다. 등단 21년을 맞이한 중견 소설가 우광훈은 소설을 완성한 뒤 출판사에 의뢰해도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과정을 겪으며 우리나라 전체 작가의 90% 이상이 자기 돈을 들여 자기 책을 출판하고 자기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책 쓰기와 출판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지적했다. 그는 출판사들이 책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웬만해서는 출판을 꺼린다며 그에 대한 반감으로 또 문학상에 응모했다고 밝혔다.(조두진, '제7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작 소설『뽑기맨』펴낸 우광훈 씨',『매일신문』, 2017. 2. 18.

그간 신춘문예에 대한 여러 측면이 다루어지면서 해당 제도의 긍·부정의 양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등단 시스템의 위계화를 조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단의 권력을 쥐고 있는 대형 출판사나 문예지의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춘문예의 위상이 낮아져 유명무실해진 탓도 있다고 여겨진다. 단순히 문예지를 공격하거나 언론사를 비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 관련된 보다 복잡한 관계망 예를 들어 정치이데올로기, 문학의 대중화와 문학 시장의 변화, 매체의 수나 다각화와의 관련성, 문학 교육의 패러다임 등을 함께 다루어야 분명히 조망할 수 있다.

4. 폐쇄적 등단 교육과 작문 환경의 변화

앞의 두 장에서 1990년대를 기준으로 등단 시스템의 변화가 복수 등단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등단 시스템과 관련하여 등단과 교육의 연계성에 대해 살피려고 한다. 단순히 복수 등단이 확산되는 현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여러 조건을 두루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춘문예든 문예지든 신인 선발 과정이 등단 제도로 자리 잡았고 그 제도의 인력 기반은 다시 등단 교육, 등단 교육 시장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신춘문예나 등단 시스템에 대해 다루다 보니 특히 예각화하여 살필 부분이 바로 교육 분야였다. '등단 교육'이라 불리기까지 하는 국문과나 문예창작학과의 창작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등단시스템과 복수 등단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확실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최근 신춘문예의 특징 중 하나는 20대 당선자가 현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등단 연령이 높아졌다는 차원이 아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20대 청년들이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거의 막히다시피 했고 문학 전공을 지망하는 일부의 학생들만이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시절 '수상 경력'을 쌓아 스펙을 갖추려는 시도를 한다. 우리나라의 10대 중후반 학생 중 문학을 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닌 향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대학에 와서 갑자기 문학에 빠져들 리는 더욱 만무하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20대 초반의 신춘문예 당선자가 드물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문학 교육이 학습용으로 더 정확히는 입시용으로 전락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간간이 명맥을 유지하는 20대 당선자들은 특히 2000년대 이후의 당선자들은 예외 없이 문예창작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보고가 있다.[26]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공모를 위한 문예창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이에 대해 이재복은 신춘문예가 대학의 문창과나 국문과 등 제도적인 문학 교육을 받은 소수의 경쟁으로 치달아 점점 체험의 폭이 좁고 형식이 패턴화되며 매너리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27] 그는 이어 현재의 문학 교육이 제도화된 모범 답안을 주고 그것에 맞는 기교나 기법을 구사하는 일종의 틀 지워진 작문이라고 비판했다.[28]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문학 교육의 장이 등단 교육의 장으로 변질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29] 거기에는 당연히 문예창작이 순수 예술이나 학문이 아닌 상업

26) 이명원은 90년대 지나며 전문대를 비롯해 4년제 대학에서 문예창작학과를 폭발적으로 신설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소설 당선자의 70%가 문창과 출신이고 평론은 100% 문예창작학과와 국문과 출신이다.(「신춘문예 제도의 성립과 현재적 의의」, 『파문』, 새움, 2003, 214쪽)

27) 이재복, 「우리 문학의 행로와 신춘문예」, 『열린시학』 2004년 봄, 85쪽.

28) 위의 글, 93~94쪽.

29) 서덕민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70여개의 문예창작과가 설립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며 그 중 20여개 대학은 대학원 과정까지 설립해 심화 단계의 문학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거는 그것을 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대중문화의 수요 욕구가

적 콘텐츠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담겨 있다.

문예창작학과 대부분이 처음 개설할 때와 달리 순수한 문학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학의 문학 교육은 각종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목적을 두고 방송대본의 구성이나 영화의 시나리오 등을 함께 다루는 실용학문의 성격이 더 강하다. 결국 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행위가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제작 과정의 구성 요소로 전락한 것이다. 대학이 마련한 대책 중 하나는 문인을 양성해 대학의 명성이라도 얻는 것이었다. 문예공모전을 통해 작가를 배출하여 문학 전문가 교육에 부합하는 결과를 산출하면 언론에 해당 대학의 학과가 노출되면서 부가적인 이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육 내용은 '유형파악-모작하기-응모작 제작'으로 진행되어 목적성에 기반을 둔 문예활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맹점이 있다.[30]

문예창작학과의 등단 교육이라 일컫는 방식 역시 등단 시스템 서열화에 일조하는 셈이다. 그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매기는 신문과 문예지 등 매체의 등급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존재하고 오로지 정상을 향해 달리도록 교육한다면 서열화는 더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술로서의 문학과는 거리를 갖는 경제적인 문학만이 잔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잘 팔리는 문학만이 살아남는 것이 옳을 수는 없다. 잘 팔리는 문학이 곧 좋은 문학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문학교육이 등단 교육이 되지 않도록 즉 등단과 무관한 문학교육을 하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문학 장은 건강해질 것이고 등단 제도 역시 새롭게 정비될 수 있다. 그래야 복수 등단 등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지고,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미래 처우도 밝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집적된 신춘문예 당선작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은 여러 차례 거

증가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았다.(「문학 전문가를 위한 교육 내용의 구조화」, 『국어교육학연구』 41집, 2011. 8, 128쪽)

30) 서덕민, 위의 글, 같은 곳.

론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신춘문예 형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면을 밝혀 실제로 창작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춘문예 당선작에 대한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시기의 당선 패턴을 정리하고 통시적으로 신춘문예가 어떻게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왔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면 학생들이 단순한 모작이나 패턴을 응용하는 차원을 넘어서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춘문예 당선작의 도그마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면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다룬다면 복수 등단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왕에 유예된 제도라면 유명무실해진 신춘문예의 위상을 높여 등단 구조의 균형을 끌어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춘문예의 역기능을 인정하고 제도의 탄력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하더라도 본래 신춘문예의 미덕을 대중과 문학 사이의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해내었다는 데서 찾는다면 반드시 제도의 폐지만이 해결 방안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제도 간의 서열을 무마하고 다양한 접근의 허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춘문예 문제를 떠나 글쓰기 환경 자체가 크게 변했다. 전국단위 공모전 건수만 해도 1년을 기준으로 수백 건에 다다른다. 대중매체 변화에 따른 이러한 글쓰기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매체에 부합하는 글쓰기를 제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몫이 되었다. 참신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열어두는 것만큼 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결론

본고는 최근 문학의 상업성과 결부해 등단 시스템이 서열화를 이루고 끝없는 경쟁구도가 펼쳐지면서 복수 등단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살폈다. 작가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신인을 넘어서는 고지가 너무 높아 수많은 문인들이 결국 등단 후 절필상태에 이르고 있다. 등단 후 절필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은 신문이든 문예지든 등단 매체에서 자사의 신인 작가들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도를 고민해야 한다. 서열화된 등단 시스템 안에 갇히지 않도록 등단제도의 차별화를 꾀하고 웹이나 휴대폰 등의 매체 간 전략을 통해 지면 확보를 하는 것도 고려할 방안이다. 신문사는 책임의식 없는 일회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문인 인력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로써 대중적 지지를 다시 얻는다면 서열화 진행이 조금은 더뎌질 것이다. 1회 등단만으로 기성 작가 대우를 하고 나아갈 길을 열어두면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등단에 목을 매는 상황도 줄 것이다. 특히 동일 장르에 한해서는 재등단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등단 시스템 안에서 복수 등단 관행을 막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제반 인식 재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등단 시스템 서열화의 종식이나 해소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다양성을 살리는 길을 찾는 노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균형을 지향하다 보면 문단 권력, 문학 권력과 자본주의 결탁도 조금은 느슨해져 작가, 독자, 매체 모두에게 시장의 논리가 아닌 취향의 존중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올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한국수상문학전집 : 8-16권』, 신태양사.
『신춘문예작품집 1983-1988』, 소설문학사.
『신춘문예당선작품집 1989-1997』, 예하.
『신춘문예 당선소설 작품집 1998-2003』, 프레스21.
『신춘문예당선소설집 2004-2016』, 한국소설가협회.

2. 논문자료

강진호, 「'신춘문예'라는 제도, 그 전개 양상과 운명」, 『문화예술』, 2007. 2.
김석봉,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2004.
김영철, 「신문학 초기의 현상 및 신춘문예제의 정착과정」,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김정란, 「신춘문예, 다시 생각해보자」, 『말의 귀환』, 개마고원, 2001.
김춘희, 「한국 근대문단의 형성과 등단제도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0.
박헌호, 「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서덕민, 「문학 전문가를 위한 교육 내용의 구조화」, 『국어교육학연구』 41, 2011. 8.
서영인, 「디지털 시대의 문학환경 변화와 온라인 문학장의 형성에 관한 시론」, 『한국민족문화연구』 46, 2014. 6.
우계숙, 「신춘문예 50년사」, 『관훈저널』 28, 1979.6.
이명원, 「신춘문예 제도의 성립과 현재적 의의」, 『파문』, 새움, 2003.
이경호, 「신춘문예 제도의 역기능과 순기능-일회성의 경쟁원리를 극복하기」, 『시인세계』 2002 겨울(http://blog.naver.com/my_psalms/100004474737).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_____, 「1960년대 등단제도 연구」, 『상허학보』 41, 상허학회, 2014.
이재복, 「우리 문학의 행로와 신춘문예」, 『열린시학』 2004 봄.
_____, 「신춘문예의 문학제도사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29, 2006. 4.
임원식, 『신춘문예의 문단사적 연구: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2003.
장호병, 「문인등단 매체와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연현, 「한국문학의 사회학적 고찰」, 『문예비평』(조연현문학전집 4), 어문각, 1977.
홍성원, 「보호를 요구하는 자존심들」, 『관훈저널』 28, 1979. 6.

3. 대담

특집 '권력' : 「한국문단의 구조를 다시 생각한다」, 『문학동네』 2015 가을,

젊은 작가 좌담 : 「한국문학의 폐쇄성을 넘어서-신경숙 표절 논란으로 살펴보는 문단 권력과 문학 제도의 문제」, 『실천문학』, 2015. 8, 15-82쪽.

대화 : 「표절·문학권력 논란이 한국문학에 던진 숙제」, 『창작과비평』, 2015. 12, 15-65쪽.

4. 기사

박태순, <나와 60년대>, 『경향신문』, 1969. 12. 3.

이춘호, <42%가 당선 후 10년간 책 한 권 못 내…"신춘문예는 끝 아닌 시작이어야">, 『영남일보』, 2013. 12. 6.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1206.010340801210001

조두진, <제7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작 소설 『뽑기맨』 펴낸 우광훈 씨>, 『매일신문』, 2017. 2. 18.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561&yy=2017

| Abstract |

Changes in the Debut System and the Meaning of Multiple Debut

Lee, Cheong

This article assumes that the movement of the power system of the appeal system will be displayed mainly in literary magazines in New Year's literary art. And the main objective was to say that the instability of the podium system led by literary power is not a single entry, but a crowd. After entering the entrance, deciding to leave a new writer is a podium system, which is inseparable from the power of literature. Typical of the Korean podium system is passing through New Year literature and literary magazines. New Year's literary art is undertaken by the newspaper company settled in the colonial era to gain strength, while the doujinshi entrance is weakened more than before. And for a long time the authority of the New Year literary ceremony was maintained. Then from the mid-1990s literary magazine voluntarily created a winning prize for discharging newcomers while the phase of New Year's literature begins to shake. Compared to the literary magazine podium In the case of a newspaper literary ceremony In the case of a newspaper company not actively supporting sponsors, difficulty in securing it. In addition, the prize which was thought of as a great advantage of New Year literary art was also a literary magazine, it did not act as much merit as before while applying a larger amount of prize. After all, the literary magazine which dominates in the podium

system holds literary power, and the publisher of the leading literary magazine grasps the power of the paragraph. As a result, preliminary writers who wish to display the ranking system of the pace system will continue to submit better conditions. Even after the entrance, eventually, in order to grasp the greatest prize-winning literary awards or to raise the name to a highly influential literary magazine, to re-entrance, multiple entrants, double entrance etc.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is still one of the effective means of climbing literature in the new spring literature, and the winning work is regarded as a war criminal in the education and it is a source to be used at the educational site. In consideration of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ctify the current regulations. We must break the ranking of the podium system by deciding to break the practice of multiple entries posted by the entered artist back to the same genre and to secure the status of one of the leading artists irrespective of the entrance ground.

Key Words: Ranking, Debut System, Multiple Debut, New Year Literature, Literary power.

· **논문투고일**: 2018년 3월 12일 · **심사완료일**: 2018년 4월 24일 · **게재결정일**: 2018년 4월 26일